

< 긍정적인 생각의 기원 >

이사야 55:6-9 / 새찬송가 25 (통일 25) 면류관 벗어나서

1. 모든 것이 다 잘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결국 모든 일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다 잘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안하겠지만 장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일은 게을리 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렘14:13,14).

부정적인 생각은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장래에 대한 준비와 회개를 이끌어냅니다. 즉 긍정적인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모두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우리 마음이 복잡합니다(전7:14).

2.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다 잘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높고 잘 안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높습니다(사55:8,9).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도 좋기에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가달을 수 없습니다.

옘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현실적 평안과 축복을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우신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가 낫는 것을 소원했으나 예수님은 죽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 표현했습니다(렘29:11).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와 희망이 뜻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나 행복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축복이나 행복은 어제나 오늘에 머무르거나 끝나는 것이나 미래와 희망은 '끝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3. 나의 생각을 판단중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긍정입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나의 낙관적인 생각이나 근심 걱정의 생각을 다 중지하고 판단도 중지해야 합니다. 이 판단중지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황홀한 체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고후 12:4).

그 후에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것입니다(전3:11)! 믿음이란 몰라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시37:4-6). 이게 절대긍정의 생각이며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적용&실천>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나의 생각과 판단, 계산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